

임진년 새해가 성도(成道)의 가르침과 함께 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새해를 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라는 심심상인(心心相印)의 뜻으로 여겨집니다.

스님의 근념(勤念)한 공덕으로 오늘의 안개를 헤쳐 나가도록,
모든 대중은 화합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에 우선하겠습니다.

불법홍포와 종단의 평안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법체청안(法體淸安)하시어 성취하신 선근공덕이
모든 대중에게 광명으로 회향하기를 발원하겠습니다.

불기2556년 임진년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